

Summer

한올타리 2022 여름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2 No 2 2022.8.18

편집: 홍보위원회

한올타리 편집팀 : 김한나, 배광현, 정유미, 정은아, 윤경문 목사

얼마전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싸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Water Ban.’ 심한 가뭄으로 인해 잔디에 물을 주지 말라는 타운 정책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잔디밭을 보니 그래도 유난히 초록빛을 띄우고 있는 풀이 보였습니다. 이름 모를 잡초였습니다. 잔디는 누렇게 시들어 가고 있는데 잡초는 아랑곳 없이 더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면서 왜 우리는 잡초를 악착 같이 뽑으려 하는지 남들이 하니 따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잡초의 유익이 무엇지를 찾아 보았습니다. 어느 분은 자기도 잡초를 원수로 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잡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잡초의 유익에 대해서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잡초로 인해 벌레들이 더 잘 모이고 벌레들 때문에 꽃들이 (암수)수분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땅 성분의 밸런스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거름을 많이 줄 경우 거름도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디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지만 잡초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늘 개선시켜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뭄이 빨리 해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뭄을 지나며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난 5월 당회에서는 1972년 창립 후 올해 첫 희년을 맞은 'NCKPC(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총회(제51회)에서 공포된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고 1년에 1~2회 교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근래 어려움을 당한 타이완 교회에 위로성금 \$ 500와 담임목사님의 위로편지 (아래 편지 참조) 를 함께 전달하였고, 영어권의 교우분들과 자녀들을 위해 영어권 목회자를 년 3~4회 초청 설교 및 세미나를 갖기로 결정하고 통역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소프트웨어 등을 위해 예배예술위원회에 추가예산(\$3,000)을 결정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June 2 2022

Dear sisters and brothers in the Taiwan Presbyterian Church of Greater Boston:

May the presence and abiding love of God sustain you and empower your essential ministries of comfort and healing in this tragic time.

It is with deep sadness that we have learned of the tragic event that took place in Laguna Woods, CA. Words alone are inadequate to express our sorrow on hearing such horrific news.

Although we are aware that we live in a highly volatile situation, we are never prepared for such an event. It especially, as an immigrant community, hits us harder. But we believe that we will emerge victorious in the end.

Now on behalf of the session members and members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we extend our heart-felt condolences to the Taiwanese community as well as the congregation of TPCGB.

And as a token of solidarity with you, the session concurred to donate to the education fund for the children of Dr. John Cheng. We have already sent the donation to POB.

And we thank God that we have a resilient faithful community in TPCGB. And we pray that His Kingdom prevails as you strive to witness the gospel throughout the Metropolitan area of Greater Boston, as well as worldwide.

To His Glory,

Young Ghil Lee, Senior Pastor

Yangsul Chang, Clerk of session

성례주일에 4명의 자녀(박 새로이(6/1/22), 신 은유(1/28/22), 엄 태윤(7/13/20), 이찬휘(8/18/20)들이 유아세례를 받도록 추천하였습니다, 내년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월 당회에서는 행사위원장으로 추대(3월당회)된 한문수 장로가 아래와 같은 주요행사의 윤곽을 발표하고 보완하여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주요행사계획:

이민 심포지움: 2013봄 (3-5월 사이)

어머니주일행사: 5월 둘째주

한국문화 축제: 10월

음악회: 11월 Thanksgiving 전주일, 행사예산: 약 \$ 30,000.

팬데믹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야유회 보고 -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만나고 싶을 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화창한 2022년 7월 17일에 사랑하는 교육 2부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속에서 라즈엔더슨 공원에서 2019년 이후로 삼 년만에 처음으로 교육 2부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푸르른 자연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새들의 노래 소리 들으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며 사탕모으는 모습 바라보며 기뻐던, 그리고 기도, 대화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청년 1부, 2부와 부부청년부가 하나가 되는 정말 감동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순간까지도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정말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과연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다함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교육 2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교육 2부 자체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삼 세대가 은혜 안에서 같이 배우고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며, 세상에 정의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실현시키는 귀한 임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서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뜻깊은 야유회를 위해서 특별히 맛있는 고기 준비에 후원해 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간사 집사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늘 교육 2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간사 집사님들, 회장단들, 형제 자매님들과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지일/김은경 선교사에게서 보내온 최근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한국에서 예수제자운동 세계선교대회에 참석중입니다.

700여명의 대학생들과 집회가 있고 저와 남편이 강사로 두개의 강의를 하게되는데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1일에 다시 프랑스로 출국합니다.

감사드리며~~

프랑스 안지일 김은경 선교사 올림

저희 8월 기도제목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리옹 기도제목

1.8월 한 달간 1년의 계획을 세우고 9월에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리더들 리트릿과 교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1년 사역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2.9월 새학기에 새로운 청년들, 가정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생명 얻는 사람들 수가 더 할 수있도록

3.새로운 친구들 데보라Debora/파비올라Faviola/레오Leo/박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4.플라비앙Flavian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유란 자매와 결혼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도록



5.프랑스 리더 임채환 형제가 대표가 되어 시작하는 비즈니스 선교가 잘 준비되고 9월 중에 인테리어등을 마치고 카페테리아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원과 재정 채워주시도록, 이 장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6.일꾼을 보내주셔서 캠퍼스 선교, 언어 교환, 청소년 어린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7.가족

a)안지일 선교사 늘 성령 충만하고 피곤치 않도록

b)김은경 선교사 논문 교정이 잘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논문이 완성되도록

c)시내 직장과 미래의 진로 위해, 시연이와 시진이는 각각 대학원과 대학에 진학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재정 그리고 건강 허락하셔서 학업을 잘 마치도록

d)아들 시창, 지금 일하는 연연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예배예수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예배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큰 문제없이 주일예배와 기도회 등과 같은 활동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통해 큰 부흥을 경험하는 남은 2022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1.주일 1, 2부 예배: 주일 1, 2부 예배는 모든 순서 참여자들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현장에서 참여하여 진행하고, 교우들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참가인원이 안정적으로 되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대략 70% 정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배 후 친교실 다과와 교제의 시간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 5월 8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5월 29일은 견신예배, 6월 5일은 성령강림주일, 6월 17일은 성례주일로 성만찬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2.졸업생 축하: 2022년 졸업생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졸업을 축하하며 예년처럼 예배예수위원회에서 작은 축하선물을 전달했습니다.

3. 토요아침기도회: 2021년 6월부터 재개된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시)가 소수지만 꾸준히 참여하여 환자 교우들,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4. 동시통역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존의 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 시스템에 영어설교를 한국어로도 동시통역하여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시통역시스템을 보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회의 승인으로 \$3,000의 예산을 승인받아, 아래와 같이 동시통역 수신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1) RF 라디오파 송수신을 통한 동시통역 서비스 이용을 위해 15개의 RF수신기와 30개의 헤드폰을 구비 (본당에서 이용 가능); 2) 모바일폰에서 App (VLC media)을 통해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재원 집사의 수고로 구비; 3)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동시통역을 들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정재원 집사의 수고로 준비. 이와같은 준비하에 6월 26일 초청한 Rob A. 선교사의 주일예배 설교 때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교인들에게 한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위해 동시통역으로 수고한 이혜원 집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일예배 설교뿐 아니라, 세미나, 초청강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찬양대: 매주 1, 2부 찬양대 1, 2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2부 임시반주자로 섬겼던 민채영 교우가 8월부터 정식 2부 반주자로 섬기겠습니다. 1&2부 찬양대에서 테너로 수고하셨던 문정일 집사님이 직장관계로 7월 초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셨습니다. 오랫동안 2부 찬양대를 섬기신 이창호 /한정인 집사 가정의 콜로라도 덴버로 이주했습니다.

6. 찬양팀: 계속해서 현장에서 2부 예배의 찬양시간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학주/강다애 교우 가정이 뉴욕, 박민제/김은지 교우 가정이 뉴저지로 이주했습니다.

7. 동시통역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한 김학주 교우가 학업을 위해 이주하고, 조성경 교우 (Brandeis Univ. 영문학 전공)가 팀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조나현 교우가 동시통역팀장으로 섬깁니다.

8. 방송실팀/슬라이드팀: 계속해서 매주 1, 2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혜승 집사가 2부예배 방송실팀에 합류했습니다.

9.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 계속해서 매주 드리는 1, 2부 주일예배와 온라인방송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예배 순서 참여자들과 예배예술위원회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쉐마의 밤]

“쉐마의 밤”이 주일학교, 유스그룹, 청년부, 부부청년부,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며, 더불어 일상의 예배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6월 4일 팬데믹의 끝자락을 잡고 쉐마의 밤이 다시 한 번 하이브리드로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쉐마골든벨 2탄으로 보스톤에 먼저 심겨진 이민교회로써의 당당히 멋진 히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신임 안수집사 대표와 서리 집사 대표로 이석원 & 이소은 집사님 부부가 쉐마의 밤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을 밝혀 주셨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집사로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실 두 분을 가슴 깊이 응원합니다. 이어진 쉐마찬양단의 찬양과 어린이 축복시간을 통해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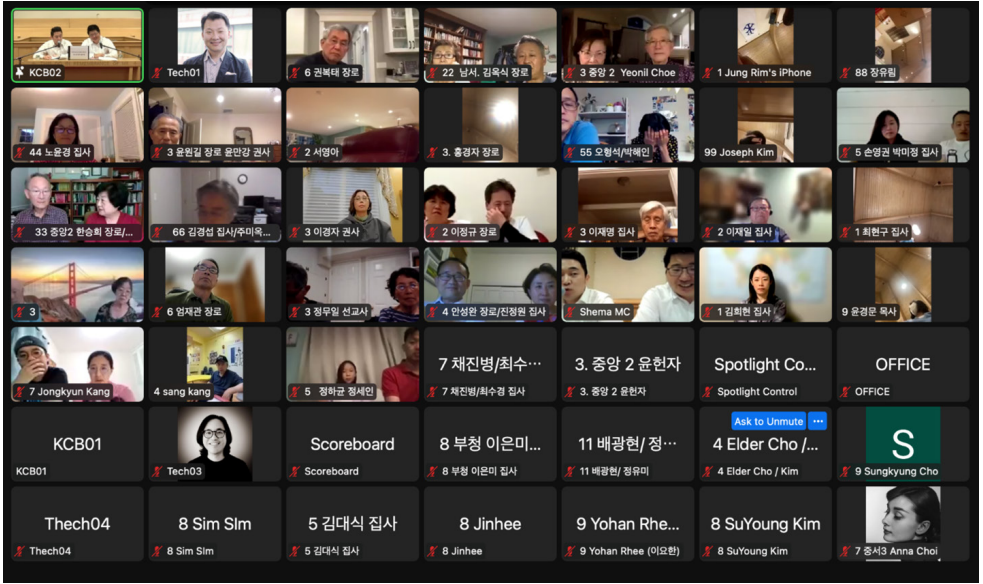
2022년도에는 신임 추천장로/안수집사님 열 분이 신임제직 성령강림 신앙패션쇼 Walking in Faith를 통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용한, 이혜승, 정광근, 최현구: 이상 추천장로, 강종균, 박선영, 손효정, 윤현자, 이석원, 이유진: 이상 추천 안수집사님들이 각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멋진 의상과 함께 신앙고백을 통해 표현하는 감동과 위트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보스톤한인교회 부부청년부의 현직/전직 회장님들이신 이주원/최정규 집사님은 보는 것만으로도 회중들이 함박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각 구역에서 보내주신 신박하고 엉뚱한, 그렇지만 재미가 가득한 문제들을 이혜승 추장님이 정성스레 다듬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두 멋진 MC가 엄청난 케미로 쉐마 골든벨 II 한시간의 여정을 순삭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강현기 집사님을 비롯한 집사회 테크팀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멋진 방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간에 방송된 쉐마팀 홍보영상은 또 하나의 재미와 감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라는 메세지 속에서 또 한명의 반가운 얼굴인 노르웨이 서희찬 교우님댁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이어진 형제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쉐마 골든벨에서는 부부청년부가 1등을, 중서3구역이 2등, 중앙3/5구역팀이 3등을 하였지만, 순위를 떠나 함께 즐기고 연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쉼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쉼마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ZFteuqCAIE&list=PLi8Mt7yqFnum-LnkiiRqGOaSwaSLeiZDz5&index=13>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2020년 여름에 보스턴을 떠나 샌안토니오, TX로 이주했던 정은아/이지훈 집사님덕 이 2년만에 다시 보스턴을 방문하였습니다. 자녀들은 그들 나름대로 옛 친구들을 만나는 스케줄로 인해 만나보지는 못하였으나 사진으로나마 비운 후 죽순 자라듯 엄청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재회를 통해 홍보위원회의 사역을 리모트로 섬겨주실 것을 거듭 다짐해 주셨습니다. 파이팅~

8월초에는 아들 은호의 축구선수로의 장래를 위해 달라스로 이주하신다는 말에 ‘맹모삼천지교 (孟母三遷之教)’ 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아랫글은 정은아 집사님의 안부 서신입니다:

한나장로님, 윤목사님 그리고 한울타리 부서 집사님들께,

살롬~ 으로 달라스에서 인사드립니다아^^

한나 장로님의 금잔디 이야기~ 집에 잔디가 있다는 사실이 늘 생소했던 저는 지금 저희집 잔디 반이 금잔디가 되어 있는 상황이 생각나 웃음이 납니다~ 금갈고 옥같은 잔디들 보호한다고 천막 펴서 그늘 만들어주는 남편 보면서...

‘시상에...저게 저럴 일인가’ 싶었는데..

저럴 일인데...모두 비용의 문제라...으흐^^;

한참 커가는 자녀들 먹이고 입히기도 벽찬 마당에 잔디라도 잘 살아있어주어야하니 까요~~~

장로님 말씀 한 마디에 저 또 주저리주저리...제가 아직 이 곳에 친구 한 명이 없어서요~ 은아 집사가 이렇게라도 말을 하고 싶구나하고 이해해주세요음^^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곳에 없으나 그 곳에 있는 사람같아요^^

이렇게 이메일로 부서 소식을 받으니 아주아주 묘하게 행복한거 있지요~

사람은 그 존재감이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나보아요^^

사순절 묵상집은 아니어서 제가 할 일은~ 제게 수정 일이 떨어지거나 혹 아무 일이라도 주어지면 그 때 참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호가 시기에 맞게 잘 만들어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넉넉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정은아 드림



2022. 6월 유아세례 가정- 신앙 간증문

박새로이(Roy Park, 2022. 6. 1.)

박민제/김은지 교우 가정

먼저 이번 6월 19일 성례주일에 저희의 둘째 아들 새로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출산을 준비하며 ‘새로이’ 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주기로 결정하며 했던 고민들, 소망들이 있습니다. 새로이의 이름에 담긴 저희 부부의 신앙 고백과 아이를 향한 소망의 고백들을 통해 간증문을 전합니다.

새로이의 이름에 담긴 개인적 신앙 고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돼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느꼈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저희 부부의 삶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저희 아들 새로이에게도 함께 하길 소망하며 새로이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이의 이름에 담긴 공동체적 신앙 고백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애가 5:21)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새로이를 주신 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이를 출산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갈 때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빈부 격차 등 이미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로 인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친구 부부의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사람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지구 공동체가 ‘새로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자라나고 살아갈 지구는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자연이 보존되며,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6월 19일 주일에 세례를 받으며 새로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말씀과 신앙안에서 양육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은유라는 귀한 딸을 선물로 허락하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은유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은유를 통하여 저희 부부로 하여금 부모가 되는 크나큰 기쁨과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은유가 성장하여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은유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도록, 또 주님을 깊이 알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갈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처럼 삶의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아이가 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이제 은유의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은유의 삶을 드립니다.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딸로 지어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엄태윤(Eric Eum, 2020.7.13)

우선 저희의 귀한 자녀 엄태윤(Eric) 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태윤이가 생겼음을 알았을때 진심으로 기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사정상 또 코로나 19 때문에 아내는 한국에서 지내고 저는 미국에서 지내는 날이 길어지자 점점 지쳐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태윤이를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한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아마 태윤이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계속해서 떨어져 지내며 힘들었겠지만 태윤이가 생김으로 인하여 제가 한국에 긴시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감사하게도 아내의 만삭기 그리고 태윤이의 출생까지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아래 저의 부재중에도 태윤이가 잘 자랄 수 있어서 아내와 한국의 가족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내와 태윤이의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드디어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릴 기도 제목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축복 안에 태윤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로 태윤이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또 일꾼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유아세례를 통해 태윤이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보스톤 한인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휘(Christopher Lee, 2020. 8. 18)

이주원/이은미 집사 가정

안녕하세요 이찬휘 엄마 이은미 입니다. 이제는 소개를 준휘엄마 찬휘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하네요.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며 잘 양육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씁니다.

둘째 아이인 찬휘를 임신하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인지 갑자기 모든 것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찬휘의 미국이름을 지으면서 다시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Christopher 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그 뜻이 to bear/carry Christ라는 것을 보았을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세지처럼 느꼈습니다. 항상 어려울때나 좋을때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면서 살아보자고 그때 다시 한 번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것 같습니다.

찬휘를 키워나가면서 첫째 아이와는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부모가 낳고 키움에도 너무 다르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참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카피 페이스트가 아니고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 또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저는 저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저의 못난부분을 아이들이 닳을까 걱정도 되고 하지만 저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찬휘를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하고 또 그 길로 계속 살아갈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가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린이들의 말씀 축제, 여름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가 지난 6월 24-25일에 3년 만에 교회에서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만에 신나는 율동과 찬양, 그리고 말씀 앞에 모인 어린이들의 입가에 함박 미소가 지어져 있음을 마스크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인 “Make Waves: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around you”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오히려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가지 제약과 한계에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모인 어린이들로 인해 이미 본당에는 은혜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VBS를 위해서도 참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전체 준비를 이끄신 강상철 장로님과 최안나 부장 집사님, 찬양을 인도하신 신보경, 박재미 집사님, 초등부 성경공부에 김승욱, 이관화 선생님, 유년부 성경공부에 박미정 선생님, 유년부 Arts & Crafts에 손효정, 심진희 선생님, 초등부 탁구에 권복태, 남수용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을 배우며, 또 만들기를 하고 신나게 탁구를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방송팀과 등록팀, 사진 동우회와 학부모회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올해 여름이 조금 길게 느껴지지만, 곧 모두 돌아와 다시 함께 은혜의 물결을 타고 새학년을 시작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더 많은 사진들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스톤한인교회의 귀여운 중고등부입니다!

날씨는 계속 더워지고 습해지지만, 저희는 꾸준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 기위해 열심히 노력한 12학년 학생들이 후련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신 점심도 먹으면서 격려의 편지도 써줬습니다. Congratulations, Eunho, Esther, and Joshua!

6월 24일과 25일에는 VBS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어렸을 때 VBS에 와서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도왔습니다. 유년부 친구들과 더 가까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VBS도 많이 기대됩니다.

6월 26일에는 미니골프를 하러 Kimball's Farm에 갔습니다! 맛있는 도넛, 아이스크림을 먹고, 게임도 하면서 더웠던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야외에서 친교를 할 수 있는 기회라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도 놀이도 열심히 하는 중고등부입니다!



7월 10일에는 견신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견신식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공부를 한 학생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견신식을 마친 후, 저희는 볼링을 하러 갔습니다! 볼링도 하고, 당구도 하며 친교를 했습니다. 저희는 더욱 더 가까워지고, 곧 먼 대학

으로 떠나는 학생들과도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7월 24일에는 Lock-In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게임과 찬양,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춤추기 게임으로 시작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토크카드를 활용해 친교를 하고, 떡볶이 요리대결도 했습니다! 마무리로 이런 시간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날씨는 아직 덥지만, 곧 올 가을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름의 마지막 시간도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여름방학동안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 2부 공동체는 팬데믹 기간 새로운 청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더욱 더 친밀한 교제와 말씀안에 하나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는데, 회장에 김현모 형제, 부회장에 임주광 형제, 총무에 김현범 형제가 새로운 포부를 안고 청년 2부 공동체를, 회계에 조성경 형제, 새교우 환영팀장에 백 현 형제가 섬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교우 팀장으로 섬겨주던 양원재 형제와 찬양 팀장이었던 최효영 자매는 곧 부부청년부로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5월달에 활동으로는 교회 대청소에 참여하였었고, 5월 15일에는 Newport로 야유회를 가서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올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하은, 안규리, 윤대원, 3명의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6월에는 쉼마의 밤에 함께 참여하여 3세대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6월 24일(금)에는 청년 1부와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터어키에서 선교하시는 John Lenk 선교사님을 모시고, 중동지역의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초에는 신/구 임원진 단합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신앙의 journey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7일에는 3년 만에 교육 2부 부서들이 함께 야외에서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교육 2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바비큐 파티에서 잔치와 같은 풍족한 음식을 나누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부서간의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유회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 정규 모임으로는 3개의 그룹으로 성경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5월부터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정운원, 임주광, 김현범 형제가 섬겨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부터는 토요일 성경읽기 모임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주일에 모이는 청년들이 많아져서, 교육 2부의 배려로, 7월부터는 청년 (1/2부) 점심 식사비를 이전 \$250에서 \$300로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년들을 위한 주일 점심을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청년부

부회장 김학주 강다애 교우

저희 부부청년부 (올해의 표어는 “풍성한 말씀, 감사하는 찬양, 온전히 매는 사랑의 공동체” 골로새서 3:14-16) 는 격주에 대면 형식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는 김수영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과 함께하는 예배 형식으로, 다른 한 주는 교제 위주의 형식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부부청년부를 찾아주신 김민기/이지영, 김재윤/박건희 가정과 환영회를 진행하였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타주로 이사하시게 된 윤영훈/신재원, 김학주/강다애, 박민제/김은지 가정과 환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6월에 박새로이 (박민제/김은지), 신은유 (신준섭/박예리), 엄태윤 (엄순호/곽보람), 이찬휘 (이주원/이은미) 의 유아세례가 있었고, 7월에는 김학주/강다애가 가정에서 득녀 (김지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2부 소속의 청년1부, 청년2부, 그리고 부부청년부 구성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야유회가 7월에 Larz Anderson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항상 부부청년부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 모든이들이 펜데믹으로,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 드립니다

우리 권사회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선교사님과 목회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목숨걸고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영과육이 연약한분들이,
전쟁 피해자분들이,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아동학대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원진 6명(주미옥, 김동숙, 김경희, 신미송, 김영순, 김혜숙)은 펜데믹으로 인해 상
록회원분들과 권사회분들을 직접 찾아 뵙지는 못하지만 전화 안부를 드리고 생신 카
드를 전달하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6월 26일은 김동숙 권사님의 인도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주셔서 쉼터 봉사를 하였
습니다.
이를 위해 봉사하여주신 분들과 도네이션을 하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랑의 씨앗이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청년 1.2부 점심식사 도네이션을 하며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1예배시 목사님 음료(차)를 마리
아 여선교회를 도와 준비하며 성
만찬 준비를 김정림 권사님을 도
와 준비합니다.

“주님! 권사회가 주님의 능력으
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오니
큰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작은
일을 마치 큰일처럼 전심을 다하
여 할 수 있도록 역사 하소서”

‘기도하는 권사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를 생각해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숫자의 성장의 의미가 아닌, 오고 가는 세대를 위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드리는 노력을 뜻함을 압니다.

올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 가는 우리 마리아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노력은 어떠하였는지….

포스트 코로나로 옮겨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KCB의 참된 부흥’을 기도하며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해봅니다.

1. 집사회주관 교회 청소: 교회 부엌과 Pallor를 청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2.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지역사회 후원 신청하였습니다. 본부에서 \$1000 이라는 귀한 헌금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헌금은 선교사님과 이지역 젊은 교역자님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3. 계속해서 교회 입구를 꾸미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마리아회에서는 1부 예배시간에 교역자분들께서 드실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도 7월 한달동안 우리 부서에서 섬길수 없었기에 이일을 권사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성 중보기도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고 그 뜻 안에서 안락하는 것입니다.
- 마틴 루터

Prayer is not to change God's plans but rather to trust and rest in His sovereign will.

- Martin Luther

백종환 목사



2019년 연초에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시작한 보스톤 한인교회 마리아 여성 중보기도회가 2022년 4월에 교인위원회 산하로 옮겨지면서 보스톤 한인교회 중보기도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직도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Zoom으로 만나서 서로의 기도제목과 함께, 교회, 예배, 교역자분들, 선교사분들,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에는 윤경문 목사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축복’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급한 질병으로 수술을 하셔야 하거나 육신이 연약해 지신 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긴급 기도를 드릴때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고, 위급한 가운데에서도

아기가 무사히 출산되고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귀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게 된 분을 위로하기도 하였으며, 선교지로 떠나는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함께 기도할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들을 수 있었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 섬김이로 수고해 주신 한정인 집사님이 콜로라도로 이주하시게 되어 노윤경 집사님이 새로 섬김이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주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도 아는 이가 없고 정해진 일자리도 없는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땅이라면 자녀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순수하신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가 갈급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신다는 바람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작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언제나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목표는 내 뜻과 소원의 일치 이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중심을 잡고, 그 안에 모든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우선 우리의 기도 안에 숨어있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시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도는 100%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회장 김준구 집사
서기 정광근 집사

안녕하세요 보스톤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모두들 건강하신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연기된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6월4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선교기금을 후원해 주셔서 \$3000 이상의 선교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찌는 듯한 여름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막을 순 없겠죠? 이 여름의 뜨거운 태양 조차도 가을에 맛있는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조금은 힘든 요즘의 시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어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남,여선교회 공동주최
“평신도 Vision Conference”가
2022/9/22(목) - 24(토)에 있습니다
장소: 시애틀형제교회
(Bothell, WA 98021)
주제강사: 이상현 목사
• 참가를 원하시는분은
www.nkpm.org에서 등록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김한나 장로 / 엄재용 형제
(jum00@yahoo.com)

미래를 열어가는 평신도 사역 2022 평신도회찬미행사
VISION CONFERENCE

Come Back to Jesus!

“돌아와요, 주님께!”

주제 강사
이상현 목사
일시: 2022/9/22(목)-24(토)
장소: 시애틀형제교회

워크숍 강사
조선희 집사, 박선영 목사, 이만석 목사, 이상엽 목사

www.nkpm.org ● 문의: 엄재용 형제 (407-670-4052)
미국장로교 평신도회 전국총회 (NKPC) 남부지역 & 이사당연합회 공동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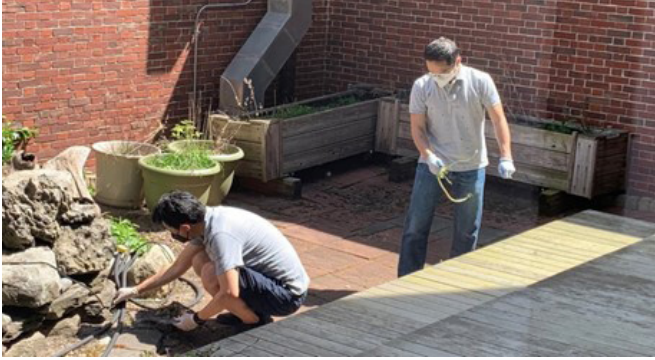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히 지내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겨울’을 이제 떠나 보내며, 지난 봄과 초여름, 집사회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몇가지 사역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올 봄부터 대면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랑스러운 해바라기 유치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5월 1일 어린이 주일날 진행하였습니다. 집사회의 여러 임원들과 해바라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다트볼 던지기, 어린이 성경퀴즈, 팝콘 튀기기, 페이스 페인팅, 벌룬아트, 그리고 어머니날 맞이 엄마 얼굴 그리기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습, 깔깔거리며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정겨워 보였는지 모르답니다. 팬데믹이 곧 완전히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도 아이들의 환한 모습을 매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을 보내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시작하는 요즘, 이를 준비하기 위해 5월 14일에는 집사회를 비롯하여 교회의 제직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청소를 그야말로

순식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청소하고 남은 시간에는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보너스까지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올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전교인 야유회에서는 더 많은 분들을 직접 뵙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밀렸던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며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남은 여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행복하고 알차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KCB 나누고 싶은 모습들



환경 미화 봉사



집사회주최- 어린이 주일 행사



유년 초등부-VBS



교육2부 연합 아우회



은퇴장로기도회 zoom 모임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